

2012.06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www.dail.org

하
다
일
공
동
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리의 천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아시아 영성의 수원지를 꿈꾸며”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날이 질어만 가는 신록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자연의 섭리를 보며 그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6월을 맞이하기에 앞서 캄보디아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기공식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첫 개척 탐사부터 모두 합하면 캄보디아다일공동체만 스무번이 넘는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 또한 다양한 후원회원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캄보디아에 세워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향한 우리 주님의 비전을 깊이깊이 되새기고 돌아오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시아의 희망으로 자라날 청년들이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영성수련센터, 매일 매일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가 올려질 다양성 안에서 일치 추구하는 씨엠피다일교회 예배당, 그곳이 바로 아시아다일비전센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 서로 다른 종교, 가치관, 국가를 뛰어넘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인류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 그 하나를 성심다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시아다일비전센터의 건립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청량리 다일천사병원에는 캄보디아 바탐병지역의 르은이라는 작은 소년이 심장병을 고침받기 위해 와 있습니다. 2주 전 수술을 받고서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수술이었지만 자신을 도와준 낯선 나라의 많은 후원회원과 집에서 기다릴 부모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자신과 같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또 다른 아시아인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아시아다일비전센터가 꿈꾸는 예수의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아시아 영성의 수원지, 아시아인 크리스천들의 성지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밥퍼에서 100수 잔치상을 받으신 어르신과 함께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르은이의 새 생명, 새 삶을 꿈꾸며...
- 06 Review 오병이어의 날 감사예배와 밥퍼효도잔치
- 08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 10 **다일의 현장** 다일천사병원
- 12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중국다일공동체
- 16 **포토에세이**
- 17 **닭 선물을 통한 희망 프로젝트!**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밥퍼 앞마당에서 열린 그림축제에서
이 곳을 찾는 노숙인, 행려자, 노인분들이
어릴적 마음으로 붓을 들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그림축제는 밥퍼에서 20년 넘게 봉사중이신
소망교회 박명희 권사님의 후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었습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르은이의 새 생명, 새 삶을 꿈꾸며...

5월 11일 드디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 르은이가
멀리 캄보디아에서부터 수술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르은이가 낯선 한국 땅까지 찾아온 이유는

다일공동체 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B.C.P.-Beautiful Change Project)

20차 대상자로 아픈 심장이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

르은이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씨엠립, 바탐방 지역은 과거 몇 세기 동안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향이 서로 미쳤던 곳입니다. 1970년대 내전 당시에 지뢰가 많이 매설된 결과 이 지역은 황폐화되었으며, 지뢰 제거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는 위험성이 여전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793,000명 정도이고 도시 중심에는 상커강(Stung Snanker)이 수직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강 왼쪽인 서쪽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식민 지배 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 르은이네 가정은 한 평



캄보디아 바탐방 르은이네집



아픈 르은이와 아이를 살리고픈 엄마



심장병으로 손톱이 푸른 아이

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평지에서 살지 못하여 수상마을 빈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꼬발다우이고, 바탐방 지역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 있는 씨엠피의 수상빈민촌 마을에서는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르은이 가정의 형편상 배 값이 없어서 큰 배를 탈 수 없어 작은 나룻배로 씨엠피 무료병원에서 약을 타가기 위해 오고가야 합니다.

+ 다일공동체와의 만남, 알 수 없는 이끌림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이옥주 부본부장님과 함께

Q. 처음 아이와 엄마를 만났을 때 어땠나요?

A.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니다. 캄보디아 작은 마을 폰놈끄라움에 위치한 다일공동체로 어느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젓먹이 갓난아이와 열 살 정도 되는 아들을 앞세워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도움을 받으러 아이를 앞세워 온 엄마구나 했습니다. 행색이 여느 사람보다 못하였기에, 이 엄마는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마다 제 마음을 쿵쿵!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Q. 아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A. 생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심한 경기를 일으켜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아마도 다른 나라에 가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분명한 건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그 때부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아들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았지만, 수상빈민촌에 살아가는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냈던 거죠.

Q. 르은이네 가정환경은 어떤가요?

A. 수상빈민촌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은 물고기 잡이이고, 아버지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에 \$1.5의 수입으로 8명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르은이 약을 받기 위해서는 씨



수술이야기에 그만 눈물이...



5월 11일 수술을 위해 드디어 한국 입국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앰립까지 가야하는 등 부모의 부담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Q. 다일공동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A.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11년 동안 르은이와 그렇게 먼 길을 오가며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어느 날, 그날도 아이의 약을 타러 배를 타고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뽀안이라는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뽀안이는 다일공동체에서 척추 측만증 수술을 하여 준 어린이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무심코 '다일공동체에 가 보라고, 거기 가면 고쳐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르은이 엄마는 3시간 뱃길을 달려 한 걸음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온 것입니다. 르은이를 보는 순간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모두 이 아이는 주님께서 고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은 말합니다.

다일공동체에 가보라고, 거기가면 낫는다고... 이 말이 얼마나 심장을 울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면 낫는다는 믿음, 르은이 엄마도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다일공동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르은이를 비롯해 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월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0시간의 긴 수술 직후 르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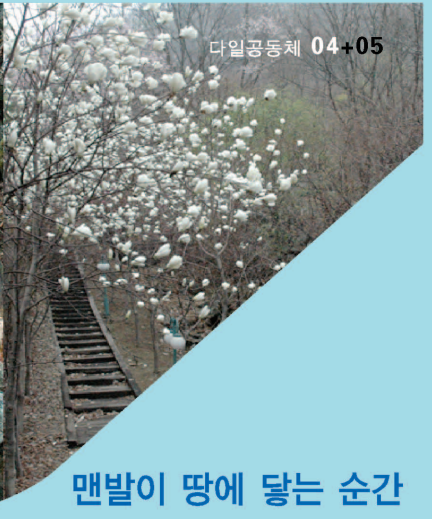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이옥주 부분부장

르은이의 새 삶을 위해 다함께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 후원안내

국민 467701-01-128318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



맨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와 땅은 하나

주님과 함께 걷는 “맨발로(路)”의 초대

문의 (당일 방문 및 숙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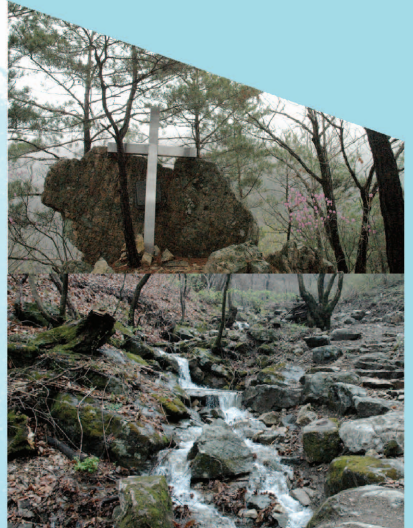
031. 585. 2004 설곡산다일공동체

010. 6375. 8004 (이모세 자연치유센터 원장)

www.dail.org

신을 벗고 맨발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흙을 밟으며 걷는 길
걸으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길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맨발로(路)

나를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과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일랑
내려놓고 오세요.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년 설곡산다일공동체 생명축제를 마치고...

5월 4일부터 6일까지 설곡산다일공동체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한 쉼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최일도 목사님의 영성강좌를 통해 작은 나눔에서 시작되었던 섬김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생활로 묻어가는 영성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Review



오병이어의 날 감사예배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에는 24년간 매일 밥을 나눌 수 있었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나눔과 섬김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 특별한 십시일반 실천 이야기

하나, '단순한 밥값'을 넘어 '이웃을 돕는 후원금'으로 노숙인 행려자 무의탁노인 분들께서 100원씩 낸 자존심유지비(식사비)를 가난한 제3세계의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들, 아,밥!(아름다운 밥퍼)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는데 동참하는 기업과 가게를 다일에서는 아,밥!(아름다운밥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월 삼천리 그룹의 아밥 2호점에 이어 3호점으로는 더 카페(장한평 트튼병원점)가 참여합니다.

오병이어의 날은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십시일반 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당신이 계시기에 아름다운 나눔 릴레이는 계속 됩니다.

+ 밥퍼 나눔에 참여하기

밥퍼 365 매일 36,500원으로 365일 밥퍼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하루배식비 노숙자 행려자 무의탁어르신들께 하루배식비 200만원으로 진지를 대접합니다.

밥퍼 만사 매일 1만원씩 십시일반 정신으로 나눔에 동참합니다.
밥퍼 봉사 매일매일 천여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전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어 몸으로 봉사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01-04-037581(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후원문의 : 02)2214-0365(밥퍼) / 02)2212-8004(재단사무국)

밥퍼효도잔치

5월 8일 '밥퍼효도잔치'

5월 8일 널찍한 청량리 밥퍼 앞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외로운 이는 밥을 먹다보면 친구가 되고

사랑이 고프 이는 식판 가득 담긴 밥에서 사랑을 느끼는 이곳에서

이날은 특별한 효도상을 차렸습니다.

더불어 100수 맞으신 어르신들의 생신잔치와 함께 모든 분들께 카네이션도 달아 드리고

건강하시라고 큰절도 올렸드렸습니다.

늙고 외롭고 가난하여 어느 곳에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오늘 만큼은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다일공동체와 함께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심재혁 부회장(태광그룹), 이상윤 대표(태광그룹), 이상훈 대표(태광그룹), 정영희 사장(허벌라이프), 조용근 회장(세무법인 석성), 김일환 교육장(동부교육지원청), 박명희 이사(다일공동체), 박정자 협력대사(다일공동체), 김미화 홍보대사(다일공동체)

후원 : 태광그룹, 석성, 사조, 허벌라이프, (주)하이트진로음료, 동부교육지원청, 더블업후원자720명

(더블업후원이란? 기존의 후원금에서 동일금액을 한 번 더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봉사 : 태광그룹임직원, 흥국생명여자배구단, 허벌라이프, 한양대봉사팀, 시립대봉사팀, 개인봉사자, 소망교회 풍물팀, 무소유공연단

+ 밥퍼효도잔치에 참여한 분들의 후기

한국일민 (태광산업 봉사 석유화학 모직물사업부)

너무 현실적인 문구일지 모르지만 밥퍼가 없었다면 많은 소외 계층의 분들이 기말 최소한의 희망마저 없었을 듯 합니다. 어버이날 특별한 밥상은 기말 곳 없는 이들에게 생명줄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최윤진님 (티브로드 경영기획실 콘텐츠 기획팀)

청량리 6번출구를 나오니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쾌쾌한 냄새를 따라 걸어가니 밥퍼 봉사활동 현장이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친구족대신 자원봉사자들이 카

네이션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실까!' 할아버지 왼쪽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으휴, 가족은 다르게 아니라, 따뜻한 밥과 밥 맛 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족이지 싶었습니다♡

성유화님 (흥국생명 이노비즈팀)

봉사하고 나눈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효도잔치 봉사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제 자신에게도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일작은천국과 천국환송식, 그 의미!

다일작은천국은 요즘 이름값을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다일작은천국’에서 공동 생활하시는 입소자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두 ‘작은천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천국의 작은 기쁨과 하늘의 잔잔한 평화를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심지어는 사회봉사활동을 나온 어린 학생들도 작은천국에서 감도는 그 어떤 하늘의 영적 기운을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여고생이 사회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작은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 친구 따라 교회 나가도 되요?”

올 해 상반기에, 우리 작은 천국에서는 저 하늘 큰 천국으로 두 분을 환송해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천국환송식’이었습니다. 한 분은 과거력이 대단히 화려한(?) 분이었던 만큼, 작은천국에서의 입소 생활도 결코 만만치 않으리만큼 화려하여(?) 특하면 불화의 중심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간암 말기였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였으며,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이 만남을 완강히 거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네들 맘대로 하세웁.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애웃.”라고 전화선 너머로 싸늘하게 답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하니 마지못한 듯 억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찾아오시는 유족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염사 봉사를 하시고, 입관예배며 발인예배며 모든 과정을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진행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는, 결국에는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는가 봅니다.

발인 예배를 마친 후, 운구 하기 직전, 우리는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가족들, 즉 입소자들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고인을 향해 say good-bye 를 하는 것이지요.

“○○야,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천국에 가니 좋다. 잘 가라.”

“어이, ○씨, 잘 가시게. 내 곧 뒤따라 가리다”



“○○님, 죄송합니다. 흑흑흑..... 더 잘 섬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 큰 천국에서 만나요. 흑흑흑.....”

그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사는, 유족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어떡하든 가족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바랐던 저희였기에, 유족들의 인사는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적셔줍니다.

“..... 여보..... 미안해요.....”

“.....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흑흑흑.....”

그렇게 두 차례 천국환송식을 함께 치룬 입소자들과 직원들은, 요즘은, 암 말기로 두려움에 떠는 분들과 큰 소리로 이렇게 대화합니다.

“에잇, 뭐 그깟 죄뜨만 암세포놈 따위에 겁먹고 그래요? 까짓 것 한방에 날려버리세요. 힘 났다 뭐해요? 안 그래요?”

“하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요 놈 땀에.., 아, 쪽팔려... 에잇, 하지만 뭐, 겁날 게 뭐 있어?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구, 죽으면 나 천국 가잖아. 아, 그러면 난 더 좋지! 음, 지난 부활절 때 세례도 받았겠다. 나 이제 죽어도 겁 하나도 안 나! 나 천국 갈 거야!”

환자의 이야기를 진단하다



오산신경정신병원 김지혜선생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전화를 주셨고 현재 격주로 목요일 저녁마다 진료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보세요?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 인데요, 이제 봉사란 것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반가운 봉사문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드디어 정신과 진료가 개설되었습니다.

김지혜 정신과 선생님은 아름다운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꼭 도움을 주고 싶은 의학적 분야가 있으면 협력 병원에 의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영역은 그간 인연이 없던 관계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나 봅니다.

천사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약 한 알, 거즈 한 장 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감기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신경정신과 진료의 개시는 고무적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은 선생님 앞에서 단 둘이 마주 앉아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누구 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진심 어린 말 한 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의 앞에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귀를 쫓긋 세우고 마음을 열어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도대체 왜 아프고 힘

들어왔는지 의학적인 진단과 설명이
결들여지고, 보조적인 약도 처방이 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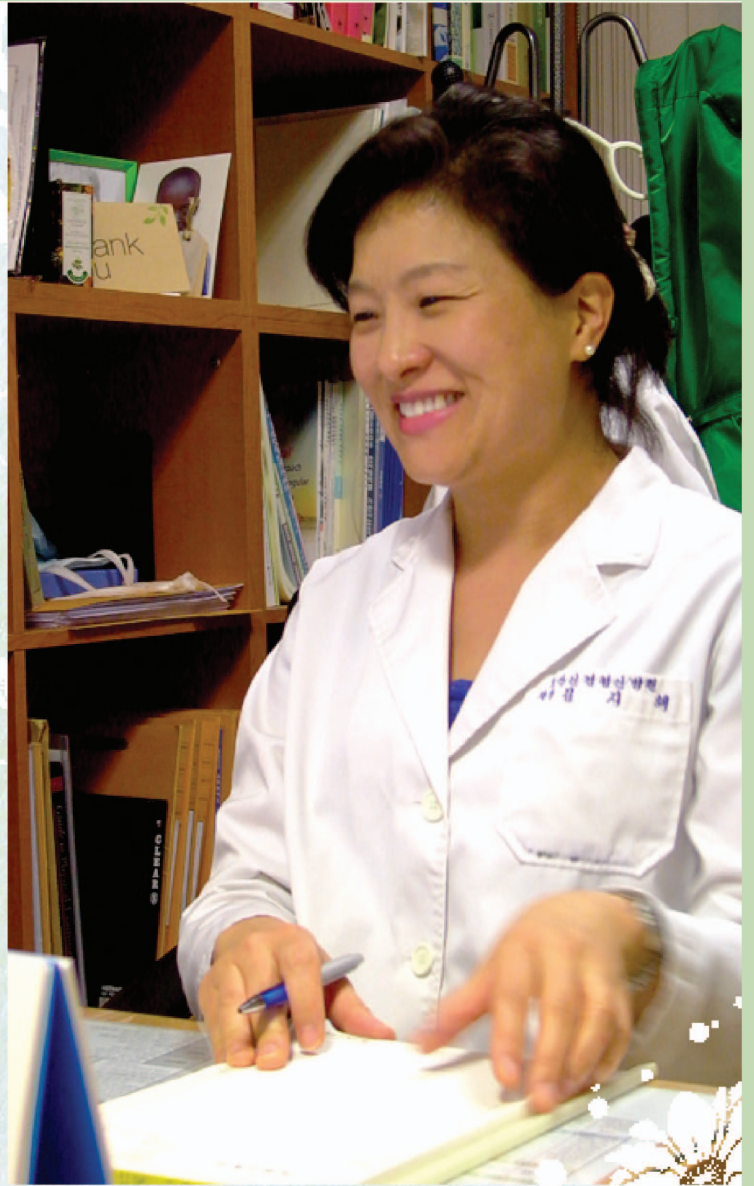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이면에 혜택을 누리
지 못한 채 방치된 환자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일 천
사병원이 추구했던 사역입니다. 지금
이곳의 진료실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 김지혜 선생님은 멀리 오산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의 일터에
서 열심히 일을 한 뒤 아름다운 재능
기부를 위해서 멀리 청량리 사역지로
달려오십니다. 선생님은 작은 꿈이 하
나 있으신데, 중·고등학생 두 따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
어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보다도 더 큰 유산이 없다면, 자녀에게 재능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런 선생님께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보답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다일을 언제라도 사역
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글/ 김민준 의무원장(다일천사병원)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토요 어린이예배 찬양팀



일대일 아동결연이 필요한 가정



음악수업중

열대 더위보다 더한 열기

Philippine

살롬!

필리핀은 지금이 일년 중 가장 더울 때인 건기와 우기의 중간지점입니다.

열대의 한여름! 그것도 구름층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로 인해 그야말로 24시간이 자연 찜질방입니다. 그런데 이 열대의 더위보다도 더한 열기가 있으니 매주 토요일마다 필리핀 다일 비전센터 밥퍼 식당에서 드려지는 어린이 찬양 예배랍니다. 어른들까지 약 200여 명이 모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암송을 하곤 합니다.

선풍기를 몇 대 틀어 놓지만 실내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도 그것 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들은 갓난아기들을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린 채로 예배드리며, 할머니들은 신나는 찬양에 신명을 못 이겨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고, 아이들은 말씀 암송하며 오늘은 어떤 상을 받을까 하고 기다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서로 달라도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한마음입니다.

필리핀 다일 공동체는 지금 미녀 삼총사, 세분의 간사님들과 함께 힘찬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고는 간사님은 중창단을 조직하여 음악연습을 시키며 어린이 예배의 찬양 리더를 양육하고 있고, 박예나 간사님은 영어와 한글 교육지도, 신경숙 간사님은 수학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예쁜 선생님들 때문에 필리핀 다일공동체는 한껏 에너지가 넘치며 다일 비전센터로 몰려오는 아이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답니다.

필리핀 다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초창기의 배식비보다 3배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작년 동남아의 홍수로 인해 곡물가격과 모든 음식 자재비들이 참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기도해주시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다일드림유치원은 지금 2기생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4세 아동 40명을 뽑는데 올해는 여자 아이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모계사회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여아 선호와 여자들의 교육열이 훨씬 높은 우먼파워의 나라입니다. 올해도 6월 18일에 40명의 원아가 입학식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필리핀을 변화시킬 인물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보내주시는 선교 후원금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후원자님이십니다

글/ 김혜경 원장(필리핀다일공동체)

● 필리핀의 미녀 삼총사

박예나 간사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사회생활이며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원함을 통한 필리핀 다일 공동체에서의 1년, 서류 면접부터 마지막 최후면접인 영성 수련까지 한 단계, 한 단계가 쉽지 않았고 연단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N.G.O를 통해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우리"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대학 2학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에도, 왠지 필리핀의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음식, 사람, 문화 등등 생소한 것도 있었지만 모두 정겹고 좋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필리핀 사랑이 시작되어 필리핀 아이들에게도 우리라는 단어를 부쳐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라는 단어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왼쪽부터 추고는, 신경숙, 박예나간사



신경숙 간사

어느새 필리핀에 온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기후, 음식 등 서서히 그들의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으며 얼굴 역시도 현지인화 되어가고 있지요. 무엇보다 2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도 시간,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을 읽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 필리핀다일공동체로 보내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주님의 어린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이 곳 필리핀다일공동체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건 주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곳이 생겼고 제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열 달도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추고는 간사

어느덧 2달이 성큼 지나 '나 이제 좀 현지인같네~' 하고 새까만 피부로 거울을 맞이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제 모습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경상도 가시나인 제가 '사랑합니다.' 표현하는게 얼마나 생소한 일인지.. 맘에 가득찼은 저를 '티취 봐봐~' 하며 안아주는 아이들, 아이들의 잔내 가득한 뽀뽀, 능청스럽게 눈썹을 올리며 인사하는 그 반짝이는 눈빛까지... 게다가 꽃, 사랑, 열매를 수줍게 내밀며 싱긋 웃는 아이들의 표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티쳐 랄라라 입니다. 그동안 참 사랑표현에 인색했던 자신을 발견하며 아이들의 다양한 사랑표현을 통해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며 처음엔 아이들이 음정박자 모두 못 맞추어 당황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그 절대음감(?)에 맞춰 춤추게 됩니다. 아이들과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임 가득한 시간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아이들, 그 다양한 색채의 소리는 하나님도 키키키 웃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서툴긴 하지만 사랑은 표현하면 할수록 풍부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사랑 마음껏 표현하고 와이치 다짐하며 시작합니다.

마할카타 코카요! 마라밍마라밍 마할카타 코카요!(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China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

중국의 큰 명절 중의 하나인 노동절을 맞아 온 집안이 즐겁습니다. 장춘에서 한연이가 돌아오고 도문의 철이, 명학, 원삼이도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송림이와 림예화는 옷과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오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동생들은 독립하거나 유학 중인 형들을 기다리고, 돈을 버는 누나는 동생을 위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동생들을 생각하는 큰 아이들을 보며 무척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이들을 통해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훈춘직업고중 학생들과 연합으로 산보도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강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문학소년 강성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강성은 다일 어린이집의 문학 소년입니다. 이번에 중국 동북 3성 추천 어린이 잡지 '아동세계'에 강성의 글이 훈춘시에서 유일하게 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아버지날 행사에 강성의 작문이 뽑혀 '보고 싶은 부모님'이라는 제목으



문학소년 강성이(왼쪽에서 두번째)



로 연설을 해서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리를 헤메이며 떠돌다가 임시로 경료원에서 할아버지들과 지내다가 다일 어린이집에 온 강성이가 점차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대입시험을 앞둔 예화

예화는 이달 말 대입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중국은 대입시험을 삼일에 걸쳐 치고 있습니다. 교육열 또한 대단해서 지난달부터 고등학교에서 매주 실전 삼일동안



다일어린이집 꼬맹이들



비전트립답사차 오신 김성재님과 함께

과 동일하게 모의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치자 일 년간의 준비와 모의시험에 지쳤는지 시험을 얼마 앞둔 요즘 맥이 없다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도 수고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며 바쁜 일정을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예화, 지아요!!(화이팅)”

예화뿐 아니라 아이들의 기증고사(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3인 왕조선은 지난번 조금 내려갔던 성적이 다시 올라 전교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안춘연은 목표인 ‘반에서 뒤에 3명 두기’를 달성했습니다. 기말고사는 뒤에 4명 두기입니다.^^ 중국 다일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적표 역시, 다양성 안에서 일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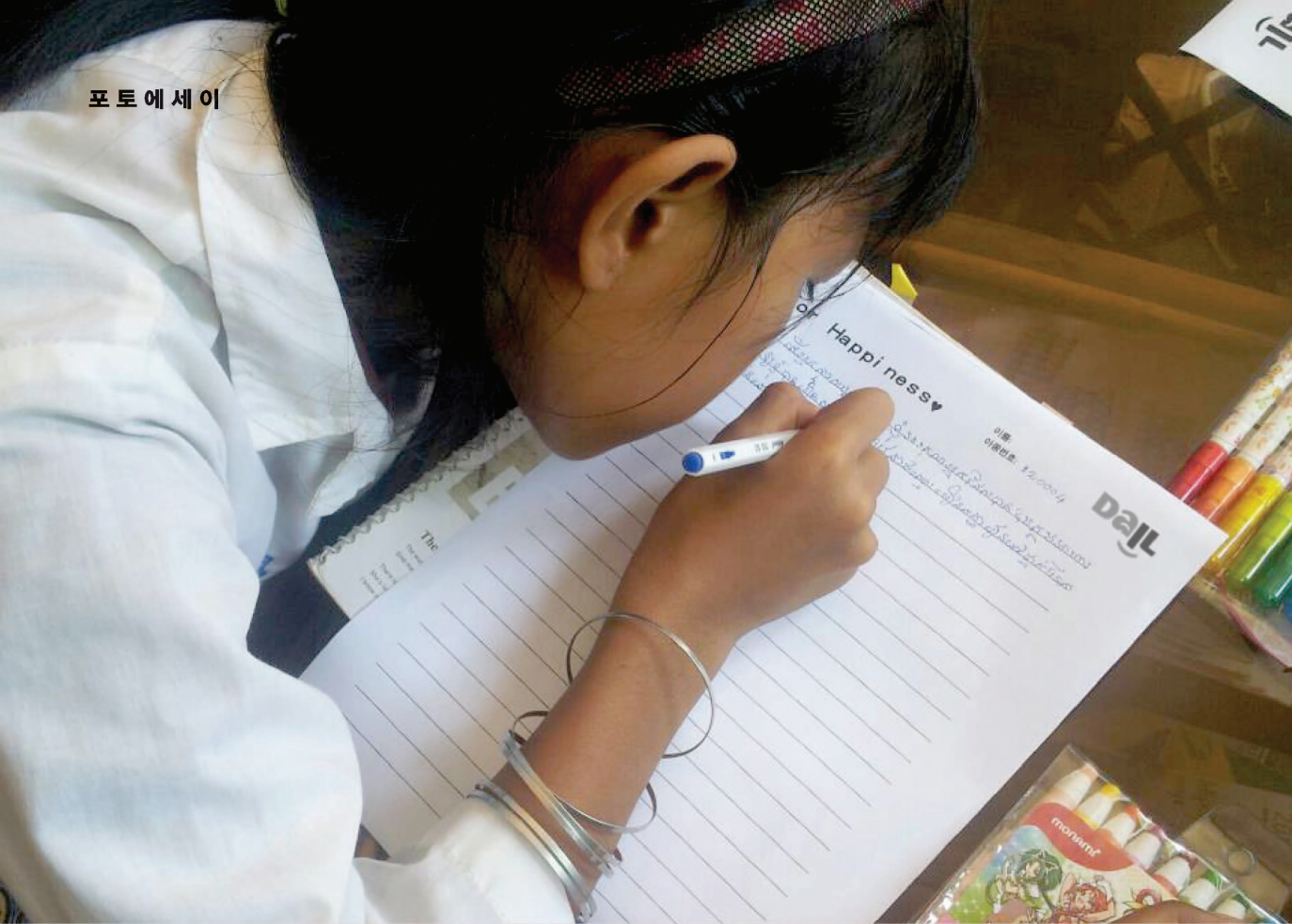
그 외에도 중3인 하이버, 하이타오, 요짱은 일반 고등학교 진학이 아닌 기술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타오는 제빵과를, 하이버는 자동차과를, 요짱은 미용과를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3이면 너무도 철없고 어린나이인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진지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세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또 한편으론 숙연해 집니다.

다일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다일의 해외 각 사역지를 늘 후원해주시는 김성재님께서 온누리교회 어린이 JDS 8월 비전트립 답사차 방문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록한 백두산, 두만강변 등지를 땅 밟기를 하며 저희 마음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에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하와이 코나 예전 DTS 팀들도 방문해주셔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달 5월을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가족의 의미와 예수님의 가족의 의미가 참 많이 달랐음을 기억하며 중국다일공동체는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이지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는 즐거움

결연후원자님께 편지를 쓰느라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펜을 푹푹 눌러 글을 써 내려갑니다.

'제 이름은 폰피어입니다.'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지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어떤 아이는 감사한 내용을
어떤 아이는 자신의 꿈을

어떤 아이는 가족의 소개를
담아서 적어 내려가겠죠.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받아 볼 즐거움처럼
결연 아동에게 후원자님은
이런 이야기로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오늘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닭 선물을 통한 쓰록뿌억 마을의 \$100 희망 프로젝트!!!



행복한 나눔이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통해 닭 지원을 받아 양계장을 꾸리고 있는 뼈얼씨의 고백입니다.

지뢰피해로 장애를 안고, 일정 수입없이 살아가는 쓰록뿌억 마을 사람들에게 양계사업을 통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100로 한 가정에 닭 다섯 마리와 닭장을 선물해 주세요.

DaIL

다일복지재단 후원계좌(예금주:다일복지재단)
국민은행 467701-01142565(문의 02. 2212. 8004)



01 <다일복지재단> 하나투어박람회



02 <밥퍼나눔운동본부> 오병이어감사예배

01 다일복지재단

하나투어박람회-꿈꾸는 빵퍼 참여

5월 18일-20일 까지 일산 킨텍스 하나투어 박람회에 다일복지재단이 올해 들어 3번째 참여했습니다. 이번 참여 주제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빵퍼로, 현지에서 '왜 빵퍼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쿠키를 만들며 체험도 하고, 쿠키 체험비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투어 착한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밥퍼, 빵퍼 봉사자들도 이어지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02 밥퍼나눔운동본부

오병이어감사예배

다일공동체는 매년 5월 2일을 오병이어의 날로 기념합니다.

한 끼 식사가 간절한 이들에게 매일 밥을 나눌 수 있음은 십시일반으로 나눔과 섬김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퍼효도잔치

5월 8일(화) 10시부터 어버이날을 맞아 '밥퍼효도잔치'가 열렸습니다.

2010년에 신축한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널찍한 앞마당에서 처음으로 1,500여 명을 위한 효도잔치상을 차리고, 즐거운 공연으로 어버이날조차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없

는 어르신들에게 그날만큼은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렸습니다.

03 설곡산다일공동체

생명축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생명축제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설곡산에서 생명의 싱그러움을 한껏 누리시며 일상에 지친 우리 영혼과 육신에 다시 한번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아 생명력있고 활기찬 영성의 삶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생명축제에 참석한 벗님과 도우미 여러분 사랑해요~

주말 아세찾기(아름다운세상찾기)

5월 11일~13일까지 주말 아세찾기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 찾으신 벗님 한분 한분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설곡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신 최일도목사님, 김연수사모님, 영성도우미, 진지도우미들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주말 아세찾기 영성수련이 앞으로 더 많은 벗님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세찾기-짱!!

6월 1일부터 드려지는 매일 예배

6월 1일 부터 설곡산에서는 매일의 예배가 드리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월요일: 음률에 맞춘 성서낭독과 기도의 예배
 화요일: 주민만을 온전히 높이는 사랑의 예배
 수요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의 예배
 목요일: 영성회복을 이루어 가는 찬양의 예배
 금요일: 순명의 삶을 회복하는 사명자의 예배
 예배시간(장소):

- 매일 오전 11시 30분(자연치유센터)
- 매일 오후 2시(기도14차 맨발로길 묵상)

<차량운행> 오전, 오후 운행

설곡산 출발: 오전 8시, 오후 5시

청량리 출발: 오전 10시, 오후 7시

04 다일평화의마음

목안리 텃밭 채소 이야기

목안리 가족들이 돌을 고르고 밭을 고르게 한 뒤 씨를 뿌린 텃밭에 무려 15개의 채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상추, 치커리, 썩갓, 아욱, 시금치, 대파, 강낭콩, 완두콩,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파프리카, 감자, 옥수수가 연두색의 옷을 입고 땅을 헤치고



03 <설곡산다일공동체> 생명축제

04 <다일평화의마을> D.T.S 훈련생 수료 및 입소

05 <예향어린이집> 봄소풍

나와 썩썩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에 초대합니다.

D.T.S 훈련생 수료 및 입소

20기 D.T.S 훈련생 박진영(산돌바람)님이 6개월의 훈련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설곡산다일공동체 노동기도학교 간사가 되었습니다. 서봉규(알콩)님, 변규리(이슬)님이 제23기 D.T.S 훈련생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D.T.S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세요.

05 예향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5월 4일에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활동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름빵'이라는 주제로 3~4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성 있게 진행하여 다양한 실내외 체험도 하고 선물도 받았답니다. 예향친구들도 어린이날인 것을 알았는지 기분 좋게 등원하여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5월 11일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주제

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아요.'로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소풍

5월 10일, 따뜻한 봄 날씨에 4세, 5세반 유아들이 과천 장미원으로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이 든 가방을 메고서 씩씩하게 걸어서 활짝 핀 꽃들도 보고 동물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5월 생일잔치

5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생일을 축하해 주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 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6 네팔다일공동체

네팔 다일청소년축구팀 창단

가난한 빈민촌이다보니 변변한 축구화나 운동화는 없지만 축구를 참 좋아하는 네팔 아이들과 함께 시니어축구팀 15명(기독교인이 아닌 청소년 5명 포함), 주니어축구

팀 12명으로 네팔다일청소년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5월26일에는 미국 뉴저지 정선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준 유니폼과 축구복을 입고 시니어팀이 기독교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주니어팀에도 유니폼과 운동화가 마련되어 신나게 뛰어놀 아이들을 그려 봅니다.

• 네팔다일축구팀 모집방법

-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
-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
- 셋째,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

지태다일유치원에 장난감을 채워주세요!

제3기 지태다일유치원에서는 신입생 25명이 입학하여 열심히 배우고 놀고 있는데, 유치원에 꼭 필요한 물품인 장난감이 거의 망가지고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가지고 놀 장난감을 채워줄 천사들을 기다립니다.

네팔을 위한 중보기도

- 네팔의 불안한 정국을 위해
- 한국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 잦은 지진으로 불안해 하는 네팔 국민을 위해
- 기습철거되는 빈민촌의 주민들을 위해



06 <네팔다일공동체> 청소년축구팀 창단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자오테이 겐또

07 베트남 다일공동체

잃어버린 꿈 찾기

15세 자오테이 겐또라는 소녀는 어려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현재는 밥피 일을 묵묵히 돕고 있는데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 받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잃어버린 꿈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꿈을 꾸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매일 배식을 꿈꾸며

지금은 주 3회 밥을 푸지만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배식을 하려하니 가야 할 길이 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하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와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실 봉사자,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피 홍보활동

1년에 한 번 있는 여성한인회 바자회에서 다일공동체 홍보를 했습니다. 후원에 대한 설명과 후원신청을 받았는데, 어른들은 물론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도 모금함을 채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십시일반의 나눔으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베트남 Dole 바나나 후원

베트남 Dole에서 바나나를 후원해 주셔서 밥피 센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식사하러 못 오시는 다른 지역의 분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Dole 김민 대표의 "자식처럼 귀하게 키운 바나나를 맛있게 먹어주셔서 더 고맙다"는 말씀에 밥피는 더 감사하고 살맛나는 하루였습니다.

포스코 베트남 후원과 봉사

포스코 베트남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는 정기적으로 봉사자들이 오셔서 밥피 봉사와 후원을 해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 몸이 땀으로 젖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으로 봉사해 주신 포스코 베트남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포스코ICT 김광석소장과 11명, 포스코베트남 조윤제부장과 16명, 지구촌 새생명교회 김태수전도사의 5명, 안연숙, 최다현, 다원, 박영호, 이창순, 심동진, 이재우, 심준승, 오채린

모금함설치소

우리은행, 국민은행, 포스코ICT, 포스코베트남, 돌판위에꽃돼지, 해뜨는집, 유천냉면, 지구촌새생명교회-카페, 온누리교회 북카페, 스카이다트, K마트, 도넛도넛,

갈비지존, DADA미용실, 대궐떡집, 씨클로, 최고집, 대장금, 예가, 롯데마트, 플레이타임

0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박정식 간사 입국

DTS 21기 훈련을 수료하신 박정식간사님이 코이카 단원으로 캄보디아에 오셨습니다. 1년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겨주실 박정식 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캄보디아에 부어주시길, 섬기는 지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길 소망합니다.

르은이 수술

르은이가 심장병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르은이가 건강해져서 밝은 얼굴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르은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술비 지원과 모든 절차를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결연 쌀 지급

결연아동에게 쌀을 나누었습니다. 늘 배고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쌀은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캄보디아 결연아동에게 자전거 선물



08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자전거

09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하는 날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아프리카의 이웃들과 함께

과 편지를 보내오신 후원자님이 계셔서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캄보디아 결연아동들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09 미주다일공동체

5월 미주에서는

5월 3-10일 김연수 상임이사님 미주방문

5월 6일 미주도우미벗님과

미주협동간사와의 만남

5월 7일 미주이사회 간담회

네팔다일공동체 박종원 원장 미주방문

박종원 원장님이 들려주신 네팔다일공동체의 이야기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눈물겨운 선교 이야기로 모인 사람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눈물과 기도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네팔선교보고

5월 19일 네팔 빈민촌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5월 21일 시카고 네팔선교보고

5월 24일 뉴저지 네팔선교보고

5월 30일 네팔로 출국

둘째, 넷째 주는 밥퍼 하는 날

미주다일공동체 애틀란타 본부에는 2004년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에는 미국 노숙자 분들을 위해 밥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밥퍼 팀장으로 수고하실 정제인(정인자님의 딸)님은 영성수련 1단계를 마치고 캄보디아 다일 선교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밥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빌라페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점

전화 문의는 1-770-813-0899

1-770-813-0144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현지어로 드리는 다일의 인사!

반갑습니다!

(Nafurahi kukuona, 나푸라히 쿠쿠오나)

감사합니다!(Asante, 아산테)

사랑합니다!(Nakupenda, 나쿠펜다)

축복합니다!

(Mungu akubariki, 문구 아쿠바리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Dunia hii ni nzuri, 두니아 히이 니 응주리)

드디어 아프리카로 진출!

안녕하십니까? 2012년 4월 23일부로 탄

자니아 다일공동체로 부임한 변창재 원장, 이현신 부원장 인사 드립니다. 1988년 청량리 역광장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라면 하나와 버너, 코펠로 시작하신 다일공동체가 아시아를 넘어 드디어 아프리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착 단계

탄자니아에서 다일공동체 분원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할 집과 NGO 등록, 사역지 선정 등 앞으로 하나씩 진행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정신대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참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밥퍼의 자원봉사자"



KBS교향악단



SK텔링크



대한지적공사



백석대학교



컬투플라워 쌀후원



태광그룹



한국인터넷정보

밥 퍼 는 ○○ 이 다

밥퍼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기회다. - 김형주
매일 먹는 밥 한끼 식사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밥퍼는 생명이다. - 권태희
밥퍼에서의 한나절이 큰 경험이 될 듯하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것이 새삼 고마운 일들이었음을 느낀다. 어디에서나 밥퍼의 일과처럼 누군가에게 생명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밥퍼는 건강한 사랑이다. - 백순웅
나눔의 시작인 밥 한 끼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4월 24일-5월20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5월 신규후원

강명숙, 강석현, 강익수, 강종묵, 고성숙, 광복교회, 권용진, 김가연, 김경애, 김경희, 김나연(생명축제), 김동하, 김리라, 김미경, 김미숙, 김보라, 김보영, 김선애, 김성경, 김성진, 김성희, 김순희, 김승리, 김영숙, 김영철, 김용자, 김유리, 김윤영, 김은경, 김점순, 김점순, 김정숙, 김종건(최진숙), 김진국, 김태경, 김태근, 김태은, 김태호, 김학표(생명축제), 김흥기, 모니카, 무명(생명축제), 문금순, 문정심, 문혜영, 박계선, 박영미, 박영자, 박용대, 박정민, 박철진, 박현아, 박홍균, 반대환, 백란숙, 서지연, 서향덕, 성화수, 세진2여선교회, 손정원, 송동석, 송현주, 신성원, 신유경, 안산제일교회(생명축제), 안정임, 양정옥, 염경진, 염금숙, 오일순, 오혜정, 옹구연, 윤석창, 이명숙, 이미자, 이삼준, 이승희, 이윤선, 이인자, 이정례, 이진영, 이효미, 임재정, 임창교, 임행순, 장재혁, 장향화, 전보람, 전봉춘, 전수한(전성동), 정보선, 정한복, 정혜영, 조성중, 조수옥, 조수현, 조순주, 지구촌박수자(생명축제), 지구촌신지혜(생명축제), 지구촌최수근(생명축제), 진미심, 진순자, 최성윤, 최연례, 최영미, 최유리, 최유지, 최은석, 최은영, 최절레, 최정주, 최지희, 최진영, 하미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양연, 한희현, 홍선표, 홍성범, 황규옥, CSW0822, Edoardo Auteri, GS건설(주)자이사랑나눔봉사단

밥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광현교회, 양순화,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신민숙, 이창숙, 김정현, 김승현, 옥합선교회, 홍경화, 강찬훈, 소망교회 봉사팀, 예빛사물팀, 양희돈, 백운찬, 하늘샘교회, 김수일, 방중근, 서울석유, 김성철, 러브피플, 박종일, 허벌라이프, 이종욱, 엠엔글로벌, 최성봉, 일산은혜교회, 서장선, (주)에이엠지코리아, 한국발명진흥회, 석성, 이영숙, 고건욱외 5명, 대한지적공사, 수도권산악회, 지혜인, 최경근, 정희주, 에이앤피파이낸셜, GS건설, 최다영, 국방홍보원, 이일옥, 김성철, TOP일반, 양승철, 박연규, 광현교회, 신민숙, 권혜진(휘슬러비즈쿠편), 윤현숙, 정신남, 소망봉사팀

[후원물품]

4/17 이초아 나물 1Box
4/17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4/18 서울우유 우유 1,008개
4/23 강민수 이초아 나물 1Box
4/23 유자영 김치 2Box
4/24 최주현 쌀20kg 4포
4/24 가나다푸드시스템 열무김치 20kg
4/25 서울우유 우유 1,008개
4/25 강민수 이초아 나물 1Box
4/26 W저축은행 쌀10kg 44포
4/27 한국장류협동조합 장류 20Box
4/30 UNDK코리아 베이컨 336Pack
4/30 걸투플래쉬 쌀10kg 200포
5/01 골드후레쉬 오렌지 42개
5/02 한국장학재단 쌀20kg 14포
5/07 석수물 물350ml 2500개
5/07 허벌라이프 건강보조식품 130세트
5/07 사조 참치선물세트 500세트

5/08 사조 불고기 200근
5/08 서울우유 우유 2016개, 서울우유 전자분유 5개
5/09 봄온아카데미 쌀20kg 5포
5/12 용담기사식당 김치 100포기

[웃퍼후원]

이해옥, 최희성, 황은진, 방민성, 황혜정, 정인선, 신수영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후원물품]

한미약품 의약품, 영일제약 의약품, 박영하 금연검, 박경숙 쌀

설곡산다일공동체

강종묵, 정한복, 유두영, 무명, 안산제일교회, 유성재, 서초교회, 지구촌교회박수자, 김학표, 덕소고2-10반, 지구촌교회최수근, 지구촌교회신지혜, 지구촌교회김효정, 이선희, 최광순, 김나연

< 해외분원 >

미주다일공동체

정선희 \$1,000(네팔다일청소년축구단), 정에스터 \$2,000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현지 접수 후원금]

김도윤&싸롱씨렛, 그린투어, 서울교회 김대성 목사, 귀뚜라미부녀회, 나들섬선교회, 노를담 복지관, 덕우리계단지도임, 윤보선, 안태목, KT&G 합기두부사장, 이인성목사&채순옥사모, 청원 보은군 자원봉사센터

필리핀다일공동체

[방문과 후원]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한상소, 정순용, 신동환, 김건희.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100을 기적후원자)]

포스코 베트남, 보민건설 심재호, 사이공한인연합교회, 박영호, 대한어린이집, 최다현

[정기후원]

정영숙, 남승현, 전기성, 송윤서, 배준익, 오은지, 김을, 김민, 최혜인, 헤린, 기흠, 조서영, 추원미, 이중환

[일시후원] 정성호(50만동)

[모금함후원]

포스코베트남(490,500동), 바자회모금함(4,601,200동), K마트(285,200동), 스카йма트(603,200동)

[후원물품]

베트남Dole(바나나27box), 도넛도넛(도너츠), 포스코ICT(쌀20kg, 바나나), 파리바게트(빵300개)

중국다일공동체

스마일님, 스마일 피기님(미국 시카고), (주)소명철강, 평생 후원자, 지춘란, 다일교회, 대전동안교회, 한기모, 이은준, 미국 코나 DTS, 박종근(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한국 동노회 노회장님, 김성재(OP), 훈춘1중학생들(과일, 간식), 훈춘영광제빵(빵후원), 훈춘한인교회(담임목사 양철호)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 TEL 770-813-0899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프놈펜밥퍼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 8220 3669 255 786 740 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



주말, 아세찾기(주아찾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다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을 2박 3일에 합니다.

6월

- 6월 08일(금)~6월 10일(일) : 서울시와 함께하는 노숙인을 위한 영성수련 2박 3일
- 6월 22일(금)~6월 24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
- 6월 25일(월)~6월 29일(금) : 1 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36기(4박 5일)

7월

- 7월 09일(월)~7월 11일(수) : 대학교수, 영성지도자를 위한 다일영성수련 2박 3일
- 7월 20일(금)~7월 22일(일) : 주말, 아세찾기 2박 3일
- 7월 30일(월)~8월 03일(금) : 1 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37기(4박 5일)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K-TV 멘토링 토크 진행
CBS-TV 새롭게 하소서 진행

저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밥心(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심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5회 노블레스 오블리제 CEO 초청의 밤에 초대합니다.

올해, '노블레스 오블리제
CEO의 초청의 밤'에서는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한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CEO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시_ 2012년 7월 7일(토) 오후 7시
- 장소_ 설곡산다일공동체(경기도 가평) ※ 티켓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티켓비 추후공지)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는

아시아의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일 서번트 리더쉽훈련센터로, 아시아 다일영성수련센터로 그리고
아시아 자원봉사센터로 쓰여질 아다센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 12족장 후원 1억원
- 24장로 후원 5천 2백만원
- 300용사후원 5백 2십만원
- 500제자후원 5십 2만원
- 2000성도후원 5만 2천원
- 5000성도후원 5천 2백원

후원계좌_ 국민은행 467701-01-142578(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후원 및 CEO의밤 참석 문의_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